		<h1 style="margin: 0;">보도 자료</h1> <h2 style="margin: 0;">4월 28일(목) 석간 (4.28 06:00 이후 보도)</h2>	
		배 포 일	2022. 4. 27. (총 13 매)
과 장	유 보 영	전 화	044-202-3540
담 당 자	임 성 필		044-202-3541

##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4.10점(5점 만점)으로 2015년(4.02점), 2018년(4.03점)에 이어 지속 상승 중

-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

### ◆ 영유아 양육 가구 조사 결과

- (어린이집 이용비용) 가구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월평균 5.6만 원,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비율은 29.6%(‘18년 대비 17.4% ↑)
- \*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정부가 100%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비 등)
- (육아휴직) 양육 중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 32.6%, 아버지 단독 2.1%, 부모 모두 이용 2.4%(‘18년 대비 각각 25%, 91%, 167% ↑)
- (애로사항) 양육 중 겪는 애로사항으로 ①이른 시간·늦은 퇴근 시 돌봄이 1위, ②예측 곤란한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이 2위로 조사됨
- (가구 양육비) 월평균 97.6만 원,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19.3%
- \* 양육을 위해 가구가 직접 지출하는 보육(사)교육비, 의류비·식비·보험료 등 제반비용
- (희망하는 보육정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18년에 이어 1위

### ◆ 어린이집 관련 조사 결과

-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평균 4.10점(5점 척도)으로 ‘18년 대비 0.07점 ↑
- (어린이집 일 평균 이용시간) 7시간 12분, ‘18년 대비 12분 ↓
- (보육교사 월 평균 근로소득) 276.4만 원, ‘18년 대비 59.4만 원 ↑
- (보육교사 일 평균 근로시간) 9시간 44분, ‘18년 대비 36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27일(수) 2021년 보육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 보육실태조사는 효과적 보육정책 시행에 필요한 실증근거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이다.
- 실태조사에는 영유아 양육실태 및 양육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 어린이집 기본사항 및 운영현황,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 근무 현황과 인식 등 보육 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 2021년 보육실태조사 개요 】

-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9조
- ▷ 조사연혁 : 1차 2004년 (5년 주기), 2차 2009년 (3년 주기), 3차 2012년, 4차 2015년, 5차 2018년, 6차 2021년
- ▷ 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책임연구원 김은설·양미선 박사
- ▷ 조사대상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준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2,500가구(영유아 3,471명)와 어린이집 3,300개소
- 이번 실태조사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준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2,500가구와 어린이집 3,30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 2021년 보육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 특성

- (일반가구특성) 조사대상 2,500가구의 영유아 수는 3,471명이었으며, 영유아 어머니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업 중 41%, 미취업 44.9%, 휴직 13.1%로 집계되었다.
- (양육형태) 조사 시점 현재 양육기관 이용 여부와 유형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기준 어린이집 50.3%, 유치원 26.5%, 반일제 이상 학원 등 타 기관 2.8%, 미이용 20.4% 순으로 나타났다.

- (선호 양육형태)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연령별 선호 양육형태를 조사한 결과, 0·1세의 경우 가정양육, 2·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4·5세의 경우 유치원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선호 양육형태: (0세) 가정양육 97.8%, (1세) 가정양육 71.4%, (2세) 어린이집 71.3%, (3세) 어린이집 70.8%, (4세) 유치원 61.4% (5세) 유치원 81.1%
- (양육비용)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 지출은 97만 6,000원으로 2018년에 비해 10만 7,000원 상승하였으며, 가구 소득 대비 19.3%로 나타났다.
  - 이는 가구별 평균값이며, 가구 내 자녀 수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1인 가구 86.3만 원, 2인 가구 130.4만 원, 3인 가구 185.5만 원이다.
- (육아휴직 이용 경험) 어머니 단독 사용 32.6%, 아버지 단독 사용 2.1%, 부모 모두 사용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 이는 '18년 조사 대비 각각 25%, 91%, 167% 증가한 수치로서,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2018년~2022년 고용보험 양육지원 관련 제도 개편사항]**

- ▷ 일반육아휴직: 소득대체율 40~80%(17.9)→50~80%(19)→80%(22, 50~150만 원 한도)
- ▷ 두번째 육아휴직 특례(22 時限): 급여상한액 200만 원→250만 원(18), 임신 중 사용가능
- ▷ 3+3 육아휴직 특례(22~): 임신 중+출생 후 12개월 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소득대체율 100% 적용(급여상한액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 ※ 그 외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설(19),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 (경력단절)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어머니 48.8%, 아버지 0.8%이었으며, 퇴직 사유로 근로보다 육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답한 비율이 37.4%로 나타났다.(18년 조사시 31.2%)
- (일·양육 병행 시 애로사항) 취업 중인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①이른 출근 및 늦은 퇴근 시의 양육, ②갑작스러운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③보육·교육기관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 순으로 조사되어,
  - 취업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거나 늦은 시간대, 또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때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 이용 및 비용**

- (어린이집 선택요인) 보호자가 어린이집 선택 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집과의 접근성이 32.9%, 어린이집의 주변 평판이 12.7%,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10.1% 순으로 조사되었다.
- (보육·교육기관 최초 이용 시기) 영유아가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21.8개월이었으며, '18년에 비해 0.9개월, '15년에 비해 2.3개월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육 기관 최초 이용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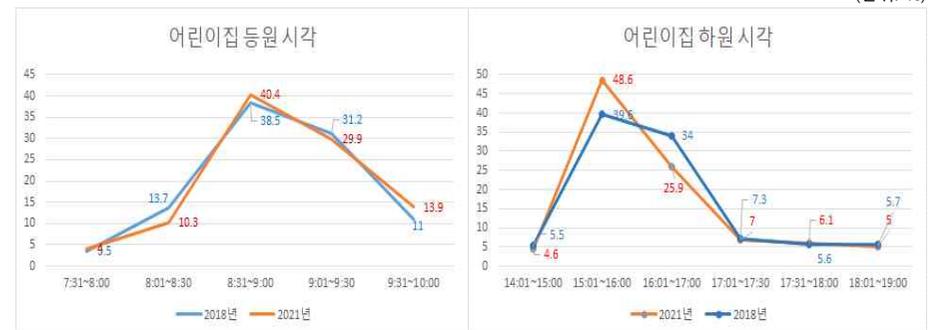
조사년도	전체 영유아	취업모	미취업모
2021년	21.8개월	19.8개월	24.1개월
2018년	22.7개월	20.2개월	25.7개월
2015년	24.1개월	21.5개월	26.0개월

< 영아·유아별 보육·교육 기관 최초 이용 시기 분포(2021년) >

구분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 이상	평균
전체	13.2%	46.3%	24.6%	12.4%	3.1%	0.4%	21.8개월
영아	17.7%	57.3%	22.5%	2.5%	-	-	17.5개월
유아	10.8%	40.7%	25.7%	17.5%	4.7%	0.6%	24.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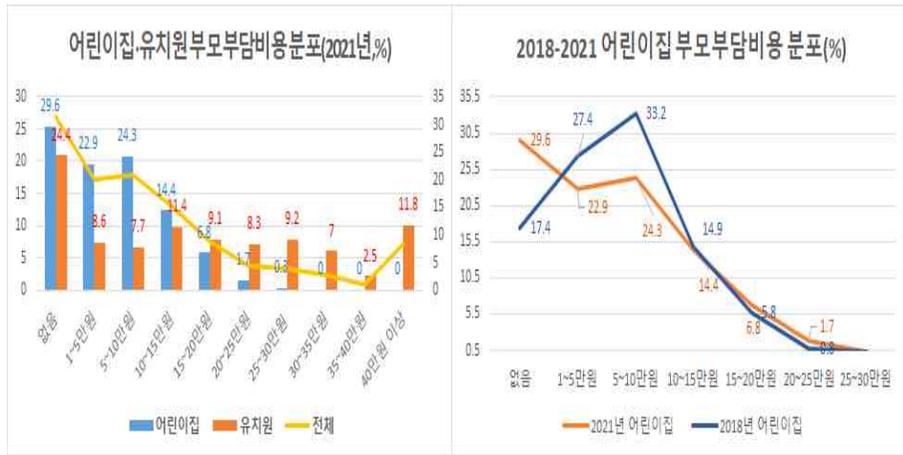
- (이용시간) 영유아의 일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나타났으며, '18년 7시간 24분에 비해 12분 줄어 들었다.
  - (등원 시각) 8시 30분~9시 등원 비율이 40.4%로, '18년에 비해 등원 시각 분포가 소폭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 (하원 시각) 15~16시 하원 비율이 48.6%, 16시 이전 하원 비율이 55%로 나타나 '18년 조사 당시 16시 전 하원 비율인 46.6%에서 8.4%p 증가하였다.

(단위: %)



○ (시설이용비용) 보호자의 어린이집 이용 시 직접부담 비용은 월평균 5만 6,000원으로 2018년 6만 1,000원 대비 5,000원 감소했으며,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2018년 17.4% 대비 12.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월평균 부담비용: 어린이집 6.1만 원('18)→5.6만 원('21), 유치원 23.9만 원('18)→18.9만 원('21)  
비용 없음 비율: 어린이집 17.4%('18)→29.6%('21), 유치원 4.3%('18)→24.4%('21)



- (비용부담인식) 부모가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거나 적당하다는 응답은 82.4%였고,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가 비용부담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0%였다.

- (특별활동)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의 경우 44.6%가 예능활동, 44.3%가 체육활동, 37%가 영어특별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으며,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4.9%로 조사되었다.

○ (자부담 의사)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비용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56.0%로 나타나 2012년 조사부터 응답률이 지속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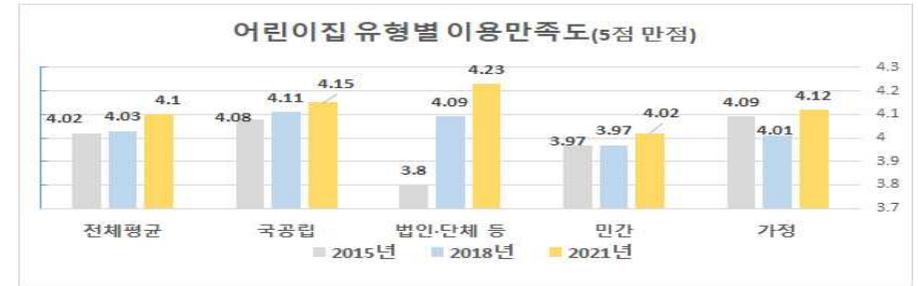
\* 추가비용 부담의사 있음: 23.5%('12) → 29.6%('15) → 40.5%('18) → 56.05%('21)

\*\* 부담의사 있는 사람의 추가부담 의사금액(천원): 165('12)→119('15)→114('18)→88('21)

### 3. 어린이집 이용 관련 인식

○ (이용만족도) 5점 척도 기준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평균 4.10점으로, 2018년 4.03점 및 2015년 4.02점에 비해 지속 상승하였다.

- (시설유형별 만족도) 직장어린이집이 4.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23점 > 국공립 어린이집 4.15점 > 가정 어린이집 4.12점 > 민간 어린이집 4.02점 순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이용만족도가 상승하였다.



- (항목별 만족도) 높은 만족도 항목으로는 교직원(4.27점), 생활지도(4.20점), 안전관리(4.20점)가 있었으며,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부모참여·교육(3.94점), 시설환경(3.94점), 주변환경(3.98점) 순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이용특성) 어린이집 서비스별 이용형태는 기본보육 이용 73.2%, 연장 보육까지 이용이 26.8%였으며, 야간연장·24시간·휴일 보육 등 취약보육의 이용률은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 기본보육 : 등원 후~16시, 연장보육 : 16시~19시30분, 야간연장보육 : 19시30분~24시, 24시간 보육 : 7시30분~익일 7시30분, 휴일보육 : 일요일과 공휴일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비율이 46.4%, 알고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이 41.2%, 이용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3.2%로 조사되었다.(2015년 3.3%, 2018년 7.1%)

#### ※ 시간제 보육이란?

- 생후 6~36개월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긴급·일시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 등 지정된 기관에 소정의 이용비용(시간당 이용 단가 4,000원 중 자부담 1,000원)을 지불하고 시간 단위 보육을 이용하는 제도

- (이용사유)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주요 사유로는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할 긴급상황 발생이 42.1%, 아이가 어려서 종일 이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24.1%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 개선 희망사항)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개선 희망 사항으로는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27.9%, 보육교직원 인력 증원이 23.6%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보육업무 전념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보육정책 기조 인식) 최근의 주요 보육정책 기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확대가 6.2점, 남성 양육 참여가 6.1점, 육아지원 서비스 질 향상이 6.0점이었으며, 양육비 경감 확대와 가정양육 지원 확대는 각각 6.0점과 5.7점이었다.
- (희망하는 보육정책) 보호자가 희망하는 육아 정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2.0%로 2018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이 21.7%, 육아 휴직제도 정착이 14.8%, 보육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이 14.4% 등으로 뒤를 이었다.

#### 4. 어린이집 운영

- (연장 보육) 조사대상 3,300개 어린이집 중 연장 보육반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약 86%로 조사되었으며,
  - 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근무형태로는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가 76.1%, 기본 보육반 담임 교사의 교대근무가 32.4%, 교사겸 직원장이 제공하는 경우가 15.9%로 나타났다.

#####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란?

- 어린이집의 정규보육 체계는 표준적 보육 과정을 16시까지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19시 30분까지 제공하는 **연장 보육**으로 구성
- 연장 보육시간에는 기본보육 종료 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구성된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기본보육반 교사 등이 보육을 추가 제공

- 연장 보육 이용 아동 중 가장 늦게 하원하는 아동의 하원 시간은 19시 ~ 19시 30분 34.1%, 18시 30분 ~ 19시 28.6%, 18시 ~ 18시 30분 18.5%였다.
- (특별활동 운영)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56.1%로, '18년 조사 당시 86.7%보다 30.6%p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부활동 제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프로그램) 특별활동을 실시 중인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활동 내용은 체육 79.8%, 음악 56.0%, 영어 47.0%, 미술 31.5%으로 예체능과 영어 중심의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어린이집 운영 개선사항) 어린이집 원장이 인식하는 지원 필요 사항으로는 교직원 인력 추가배치가 28.9%, 노후된 시설·설비 개선이 28.1%, 보육교사 근무환경·처우 개선이 16.6%로 나타났다.

#### 5. 보육교사

- (보육교사 근로소득) 조사대상인 3,300명 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6.4만 원으로, 2018년 조사 당시 217만 원에 비해 2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구성요인별로 어린이집으로부터 받는 기본급과 수당(담임·장애아보육수당 등)이 43.4만 원, 정부가 지급하는 정기 수당(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이 8.7만 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정기 수당(직책 및 주임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7.3만 원 늘어났다.



-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간 소득 격차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여 상승과 함께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소득 격차 완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사 근무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한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52분으로, 2018년 조사 당시 8시간 22분에 비해 30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점심 식사시간 등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52분으로, 2018년 44분 대비 8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근무시간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기본업무 외 원내 방역업무 부담, 그리고 연장 보육을 맡을 연장교사나 업무를 보조·대체할 보조·대체교사의 구인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아동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모가 양육 중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이른 출근 시간·늦은 퇴근시간대 돌봄과, 예측이 곤란한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제공을 위해 시간제 보육과 취약보육을 확대하고, 제공구조 개선을 검토해 편의성을 증진한다.

-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높고 보호자가 1순위로 희망하는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향상한다.
- \* 공공보육이용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비율
-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심사기준의 개선 및 어린이집 평가의 효율적 운영으로 품질 관리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다.
- 보육교사 처우와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 연장교사·보조교사 인력지원을 확대하여 휴·병가와 교육, 휴게 시간 등을 보장하고,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한다.
- \* 연장·보조교사 지원인력 5.8만 명(2021년) → 6.6만 명(2022년)
- 또한, 어린이집 내 행정·인력 관리를 맡고, 교사의 휴·병가 등 인력공백 시 대체업무가 가능한 선임교사의 도입을 추진한다.
- 이번 보육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는 오는 5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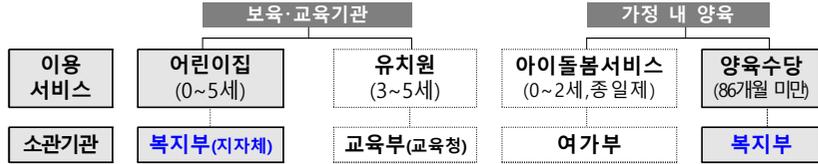
< 붙임 > 보육제도 개요 및 관련 통계

**붙임**

**보육제도 개요 및 관련 통계**

- **보육대상 및 지원방식:** 취학 전 영아(만 0~2세)·유아(만 3~5세)
  - (지원방식) ①어린이집·유치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보호자의 ②가정 내 양육을 현금·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 존재

**< 보육 전달체계 >**



- **어린이집 보육체계:** 정규보육(기본+연장)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 기본보육(09:00~16:00) + 연장보육(16:00~19:30) 시간이 정규보육 시간
  - 정규보육 이전·이후 취약시간 보육을 위해 그 밖의 연장형 보육으로 야간연장, 야간 12시간(야간연장+새벽보육), 24시간, 휴일보육 등 제공

**< 시간대별 보육서비스 제공 체계 >**



- **가정 내 양육 지원:** 영아·양육수당 및 시간제보육 지원
  - (영아·양육수당) 0~23개월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영아수당 월 30만원\*, 24~85개월 아동의 보호자에게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급
  - \* '22년 출생아부터 지급, '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인상해 보육료 지원수준과 격차 해소

**< 영아수당 도입 전후 비교 >** (월 기준 지급금액, 단위 : 만원)

~ 2021년 (종 전)				2022년 이후 (신 규)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보육	사실 미이용 (양육수당) 20	15	10	보육	사실 미이용 30 → 50 ('22년) ('25년)	양육수당 10	
보육	사실 이용 (보육료) 48	26~43		보육	사실 이용 보육료 50	보육료 28 ~ 44	

\* □ '22년 출생아부터 적용, '21년 전 출생아는 종전제도(보육료, 양육수당) 적용

- (시간제보육) 생후 6~36개월 영아의 가정양육 중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등 지정된 기관에서 이용하는 시간 단위 보육



□ **보육서비스별 이용 인원**

('21.12월 현재, 단위 : 만명)

아동수 (비율)	어린이집 (0-5세반)			양육수당	아이돌봄 (종일제)	유치원 (3-5세반)
	소계	영아(0-2세반)	유아(3-5세반)			
239	118(49%)	67(28%)	51(21%)	56(23%)	0.3(0.1%)	58(24%)

□ **어린이집 현황 및 규모별 분포**

( '21.12월 현재, 단위: 개소, 천명)

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민간	가정	협동
		개소	33,246 (비율,%)	5,437 (16.4)	1,285 (3.9)	640 (1.9)	1,238 (3.8)	10,603 (31.9)	13,891 (41.8)
아동	1,185 (비율,%)	269(22.7)	72(6.1)	31(2.6)	65(5.5)	535(45.2)	209(17.6)	3(0.3)	

현원 규모	구분	0~20명	21~39명	40~80명	81~99명	100명 이상
	전체(비율)	16,680 (50.1%)	6,331 (19.0%)	7,052 (21.2%)	1,475 (4.4%)	1,508 (4.5%)
국공립어린이집	803	1,523	2,428	436	247	
민간어린이집	1,554	3,854	3,468	763	964	

\*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의해 소 기관이 정원 20인 이하 운영

□ **2022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월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영아반(정부지원)			유아반(정부지원)			부모 부담	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계	구분	소계	부모보육료			누리온 영비
0세	499	570	1,069	3세	356	280	78	98	456
1세	439	310	749	4세	356	280	78	82	440
2세	364	210	574	5세	356	280	78	78	436

- \* 부모보육료: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수요자(보호자)에게 100% 지원하는 보육료
- \* 기관보육료: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아닌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연령별로 차원 아동 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 \* 부모부담보육료: 보육료 수납상한액(사·도지사가 결정)과 부모보육료의 차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수납받는 보육료(현재 전액 지자체가 지원중)



□ 보육교사 관련 주요 통계

○ 총 112만명 배출, 23만 6천여명 어린이집에 종사 중('21.12월)

구분	신규 자격 취득자('21)	누적 자격 발급자	현직 종사자
인원 수	25,686명	1,120,182명	236,085명

○ 236천명 보육교사 근무 형태: 담임교사 171천명, 보조교사 39천명 등

담임	대체	방과후보육	야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영아반 보조교사	유아반 보조교사
171천명	2천명	0.2천명	5천명	0.1천명	13천명	30천명	9천명

□ 시간제보육·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아동

('21.12월 현재)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수	25.2천개소	7,833개소	145개소	328개소	740개소
교사·반 수	4만8천반	5,831명	144명	226명	859반
이용인원(월)	495,681명	20,407명	401명	252명	10,434명 (연인원)
정부지원단가	시간당 1~3천원	시간당 3,200원	월 726천원	휴일당 15천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무료	무료	월 235천원	무료	시간당 1천원
비 고	-	월60시간 한도	만 0세 기준	만 3세 기준	월80시간 한도

□ 연도별 공공보육 이용률 추이

유형	구분	추이				
		'17.12월	'18.12월	'19.12월	'20.12월	'21.12월
공공보육 이용률		23.6%	25.2%	28.2%	32.0%	34.3%
국공립	시설수	3,157개소	3,602개소	4,324개소	4,958개소	5,424개소
	이용아동 (이용률)	186,916명 (12.9%)	200,783명 (14.2%)	232,123명 (17.0%)	253,251명 (20.4%)	269,957명 (22.7%)
직장	시설수	1,053개소	1,111개소	1,153개소	1,216개소	1,247개소
	이용아동 (이용률)	58,454명 (4.0%)	62,631명 (4.4%)	66,023명 (4.8%)	66,401명 (5.3%)	65,214명 (5.5%)
사회 복지 법인	시설수	1,392개소	1,377개소	1,343개소	1,316개소	1,285개소
	이용아동 (이용률)	96,794명 (6.7%)	92,787명 (6.5%)	86,775명 (6.4%)	78,322명 (6.3%)	72,432명 (6.1%)
전체 이용아동		1,450,243명	1,415,742명	1,365,085명	1,244,396명	1,189,242명